



Ilmin
International
Relations
Institute

No. 63

IIRI Online Series

샌더스는 민주당 후보가 될 수 있을까?

서정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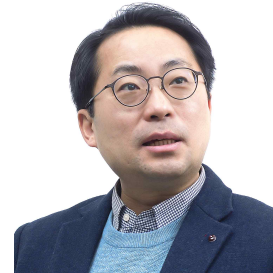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2020. 2. 27



일민국제관계연구원
Ilmin International Relations Institute

샌더스는 민주당 후보가 될 수 있을까?



서 정 건 |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올해 11월 3일 현직 트럼프 대통령과 맞붙을 대선 후보를 선출하기 위해 미국 민주당이 대장정에 돌입했다. 첫 격전지 아이오와(Iowa)에서는 샌더스(Sanders) 상원 의원과 부티제지(Buttigieg) 전 사우스 밴드 시장이 동률을 이루었고, 두 번째 뉴햄프셔(New Hampshire) 경선에서는 샌더스 후보가 다소 앞선 승리를 거머쥐었다. 그리고 이 글을 쓰기 직전인 2월 22일 네바다(Nevada) 코커스에서 샌더스는 압승을 거두었다. 라티노 주민(30%)과 흑인 유권자(10%) 비중이 적지 않은 네바다에서 크게 승리함으로써 다양한 인종 그룹의 지지를 받는 명실상부 민주당 선두 주자(front-runner)로 올라선 것이다. 청년층과 블루 컬러 유권자들에게만 인기 있던 강성 비주류 정치인 샌더스가 지난 4년간 표 다지기를 통해 확실한 변신에 성공한 모양새다. 과연 샌더스는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될 수 있을까?

이번 민주당 경선의 경우 2008년 오바마(Obama) 대 힐러리(Hillary), 2016년 힐러리 대 샌더스 상황과 달리 양자 구도가 아닌 다자 경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 큰 특징이다. 사실 미국 정치 양극화를 들여다보면 진보 진영의 진보 편향 정도에 비해 보수 세력의 보수화 정도가 더 크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즉 보수 이념으로 이견 없이 뭉친 공화당에 비해 민주당 내부에는 여전히 진보 그룹과 중도 세력이 트럼프 탄핵부터 의료 보험에 이르기까지 각자 목소리를 내고 있다. 바이든(Biden) 전 부통령, 부티제지 전 시장, 클로부차(Klobuchar) 상원 의원 등은 모두 중

도파 후보들이다. 바이든이 몰락할 가능성을 노리고 뒤늦게 경선에 뛰어든 블룸버그(Bloomberg) 전 뉴욕 시장까지 합치면 중도 성향 후보 수가 더 많다. 민주당 내 진보 진영 사정은 반대다. 초반 예상과 달리 워런(Warren) 후보가 고전을 면치 못하면서 샌더스 한 명으로 지지세가 집중되는 양상이다. 2월 22일 네바다 코커스에서 샌더스의 46.8 퍼센트 득표에 비해 워런은 9.7 퍼센트 득표에 그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까지 포함해도 전체 후보 중 최고령인 78세 샌더스의 원의 최대 장점은 일관된 진보 정책 입장과 열혈 지지 그룹의 존재이다. 연방 정부가 주도하는 전면적 의료 보험('Medicare For All') 실시는 정치인 샌더스를 대표하는 정책 브랜드다. 소득 양극화 해소, 노동자 중심 경제, 자유무역협정 반대도 목소리를 높인 지 오래다. 유세장 분위기로만 보면 2016년 트럼프 후보에게 쓸렸던 열광적인 지지 못지않다. 더구나 3월 3일 캘리포니아, 텍사스, 노스캐롤라이나 등 14개 주에서 동시에 치러지는 슈퍼 화요일(Super Tuesday) 승리에 절대 필수 요소인 선거 자금 모금 현황도 샌더스가 경쟁 후보들을 앞서가고 있는 중이다. 만일 2월 29일에 치러질 사우스캐롤라이나 경선에서 그 동안의 예상을 뒤엎고 샌더스 1등, 바이든 2등이라는 결과가 나온다면, 민주당 경선은 사실상 결론이 나는 셈이라고 미국 언론은 예측 중이다.

혹은 총 대의원(delegates)의 61.5 퍼센트 지지 향배가 결정되는 3월 17일 즈음까지 바이든, 부티제지, 블룸버그 중 어느 한 명의 중도파 후보가 치고 올라와서 1대1 구도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샌더스를 막을 방법은 더더욱 없어 보인다. 이는 마치 2016년 트럼프 돌풍이 불던 공화당 경선에서 크루즈(Cruz), 루비오(Rubio), 케이식(Kasich) 중 어느 누구도 주류 단일 후보가 되지 못하고 표만 계속 나누어 가짐으로써 결국 아웃사이드 트럼프에게 대선 후보 자리를 넘겨준 상황과 비슷하다. 물론 샌더스가 후보 선출에 필요한 과반수(majority) 대의원(1,991명)을 확보하지 못하고 가장 많은 수(plurality)의 대의원만 보유한 채 7월 밀워키(Milwaukee) 후보 지명 전당 대회가 개최된다면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1952년 시카고 전당 대회에서 과반수에 몇 백표 부족했던 1등 후보 키퍼버(KeFauver) 상원 의원이 스티븐슨(Stevenson) 주지사에 3차례 투표 끝에 역전패 당함으로써 대선 후보 자리를 내어 준 경우가 마지막 사례다.

그렇다면 샌더스 상원 의원이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될 경우 본선에 서 트럼프 대통령을 이길 수 있을까? 열혈 지지자들과 함께 혁명을 외치는 샌더스의 최대 취약점은 표의 확장성 부족이다. 민주당 내 중도파는 샌더스의 급진적 성향에 대해 우려하고 있고, 흑인 유권자들은 샌더스와 의 정서적 유대감을 크게 느끼지 못한다. 특히 샌더스의 대표 공약인 전 국민 의료 보험 개혁 정책은 개인 보험(private insurance) 폐지가 골자여서 논란 중이다. 이를 두고 트럼프와 보수 언론은 기회 있을 때마다 ‘사회주의(socialism)’ 발상으로 몰아붙이고 있다. 민주당 내 중도 성향 유권자들마저 개인 자유 침해와 세금 인상 탓에 적지 않은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 실제로 2016년 대선 당시 트럼프가 승리했던 하원 지역구에서 2018년 중간 선거로 당선된 총 31명의 민주당 의원들의 불안감이 크다. 샌더스가 대선 후보로 나서는 경우 중도 성향인 지역구에서 자신들의 표가 떨어질까 노심초사 중이다. 또한 최근 인터뷰에서 행한 “쿠바의 과거 카스트로(Castro) 정권을 통째로 비판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발언으로 샌더스는 민주당 내 주류의 우려를 자아냈다. 2020년 대선 최대 격전지이자 쿠바 실향민들이 많은 플로리다(Florida)를 트럼프에 헌납할 정치적 실언이기 때문이다.

다만 2020년 미국의 정치와 사회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그 미국이 아닐지도 모른다. 트럼프가 샌더스를 사회주의자라고 낙인찍어 쉽게 선거에 이길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오프라 윈프리(Oprah Winfrey) 혹은 스테이시 에이브람스(Stacey Abrams)같은 젊은 흑인 여성을 러닝메이트(running mate)로 선정하고 함께 중서부 격전지를 누비며 월스트리트만 배부른 미국을 다시 기회의 땅으로 바꾸어 놓겠다고 사자후(獅子吼)를 쏟아내는 샌더스 후보를 상상해 보자. 샌더스-윈프리 조합이 경합주(swing states)의 민주 당원들을 대거 투표소로 불러 모은다면 어떻게 될까? 정치 양극화 시대에 치러지는 미국 선거는 결국 지지층 동원 전략(base strategy)이 핵심이다. 따라서 트럼프 재선을 기정사실로 여기는 전망은 시기상조이다.

/끝/

저자 소개

서정건 교수는 서울대학교 정치학과를 졸업한 후 미국 텍사스 대학(오스틴)(University of Texas at Austin)에서 미국 의회와 외교 정책을 주제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학교(윌밍턴)에서 조교수(2007~2012)를 지냈고 현재 경희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다. 미국 우드로우 윌슨 센터 풀브라이트(Fulbright) 펠로우(2019),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2017~18), KBS 객원 해설위원(2018~) 등으로 활동하였다. 공저 <미국 정치와 동아시아 외교정책>은 2018년 대한민국 학술원 우수도서로 선정되었고, “The China Card: Playing Politics with Sino-American Relations”는 미국정치학회(APSA) 외교 정책 분야 최우수논문(2009)으로 뽑힌 바 있다. 대표 저서로 <미국 정치가 국제 이슈를 만날 때>(2019)가 있고, 이외에 “Vote Switching on Foreign Policy in the U.S. House of Representatives”, “미국 중간선거에 관한 역사적 고찰”, “트럼프 행정부와 미국외교의 잭슨주의 전환” 등 다수의 논문을 출간하였다. (Email: seojk@khu.ac.kr)